

지방자치·국제

# 정치권 개헌 논의 '술술'

### 김형오 의장 "특위구성 ... 내년 6월이전 개헌 끝내자"

### 여야 각 정당도 공감 ... 개헌기류 상당한 추동력 가져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하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시한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개헌 논의가 중도 무산되는 과거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현행 헌법에서 과도하게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한 '헌법 개

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나 권력분점형 정부 형태(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토조항과 국토균형발전 등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상·하원 양원제 도입, 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각 정당도 개헌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이 같은 개헌 기류가 상당한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공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기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을 나누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각각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현행 대통령제 하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18대 국회 내 개헌을 목표로 결성된 168명 의원의 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낙연, 이주영 의원)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좌담회를 열고 13일엔 30차 토론회를 갖는 등 개헌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비껴 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청와대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여야도 당론을 정할 게 아니라 의원들의 소신에 맡겨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침통한 아소 다로 아소 다로(왼쪽)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도의 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대표 히토야마 유키오가 연설하는 중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연합뉴스

## 日 정권교체 이뤄지나 ... 촉각

### 중앙부처 정책입안 사실상 완전 정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30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이후 중앙 성정(省廳·부처)의 정책 입안 기능이 사실상 완전히 정지됐다.

그동안의 역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해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기존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만큼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일단 의사결정을 선거 이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또 유권자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인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정책결정 연기의 주요 요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예산이다. 통상 각 성정은 7~8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반영하기 위한 해당 성정의 예산요구액 및 관련 세법 조항 개정 요청안 마련 작업을 가속화하지만 올해는 이를 다소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성은 당초 8월 중 마련할 예정이었던 주식용 쌀의 생산량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농정개혁 중간보고를 9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이전에 생산량 감축안을 발표할 경우 농민 표 이탈을 우려한 자민당 내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치안 팽개친 '고스톱 경찰'



이종형

사회부 기자

광주 시민들이 잇따른 살인·강도 사건으로 공포에 떨고 있다. 올 들어서만 무려 1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두 달에 3건 꼴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지만 경찰 기강은 예전보다 헤이된 모습이다. 근무 중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가 하면 음주사고를 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나사 풀린 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광산경찰 수사과 P(48) 경사는 지난 12일 오후 9시20분께 광산구 삼정동 하남중 양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의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앞서 북부경찰(당시) 소속 Y(50)경감 등 4명은 지난 달 25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한 모텔에서 관동 16만원을 절고 속칭 '고스톱'을 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단속 당시 2명은 비변이었으나 Y경감 등 2명은 근무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경찰청 감시기간이었다. 이들은 북부경찰에서 타 경찰서로 각각 전보조치된 상태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밤값 내기 심심풀이 고스톱이었으며, 퇴근 시간도 30분 밖에 안 남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감시기간 중에 근무 또는 비변인 경찰관들이 모텔에 모여 앉아 도박을 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것은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해당하는 문제다. 특히 근무까지 이따해 한가롭게 도박을 즐긴 것을 볼 때 과연 이들에게 치안을 맡겨도 될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북구 중흥동 H교회 회관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둔기 피살사건 등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지난 4월 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북구와 동구 6곳의 동(洞) 주민센터 절도사건도 미궁에 빠졌다. 또 서구와 광산구 원동 밀집지역에서는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른바 '광주판 발바리'는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같은 광주지역 치안 불안 상태는 어찌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광주 4인조 금은방 강도사건' 때는 권총 두 발을 소고도 눈앞에서 발인을 놓쳤다.

경찰은 그동안 기강 해이로 일탈 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기강 해이를 부추기는 데 일조한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축소하려 하지 말고 '제 살 깎는 아픔'으로 관계자들을 얹히 다스려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golee@kwangju.co.kr

## "마이클 잭슨은 동성연애자"

### 전기작가 폭로 ... 2명의 남자친구 뒤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생전 최소한 2명의 남자친구를 둔 동성애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인사 전기작가인 이언 헬퍼린은 새로 발간된 '폭로: 마이클

잭슨의 말년'이라는 전기에서 잭슨이 아시아계 혼혈 건설 노동자와 할리우드의 한 웨이터와 동성애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이 13일 보

도했다.

헬퍼린은 잭슨 측 검증없이 쓴 이 잭슨은 잭슨 주변에 있었던 "사실상 모든 사람"이 잭슨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잭슨과 20대 초반이었던 건설 노동자와의 연애는 200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됐으며, 잭슨은 이 노동자를 열렬히 사랑했다고 헬퍼린은 말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정부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특채 통해 3년간 기능직 정원의 15%씩 일반직 전환!!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기능직 공무원

#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토/일) 오전 10:00 ~ 13:00 사 회  
오후 14:00 ~ 17:00 행정학  
2개월완성 합격맞출강의

# 한빛 고시학원

광주북구청 02-234-0234

2008.9.27시행 한빛고시학원 신규 아규준  
중앙선관위 (광주, 전남, 북) 경쟁률 1064.7:1  
수석합격

오전 일반직전환 특채대비를 위한 전문강사진 전문교제  
핵심이론과 꼭집게 문제풀이 특강  
개강 7월 18일  
-8월말까지-

일반직 전환특채 합격도 한빛이 주도한다!  
압도적 1위! 100%적중도전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agabox.co.kr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제일 시네마
<p>구. 린던약국사거리 ☞ 1544-0600</p> <p>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최고급관 2관 킹콩을 들다 (전세)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4관 킹콩을 들다 (전세) 5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 6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10관 오감도 (18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음 부극</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 1588-7941</p> <p>1관 주은 (15세)/거북이 달린다 (15세) 2관 킹콩을 들다 (전세) 3관 아더와 미니모이 (전세)/차우 (12세) 4관 차우 (12세) 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세) 8관 아버지 (12세)/오감도 (18세) 9관 여고괴담5 (15세)/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세) 10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세)</p> <p>[상무점] 평일 밤 2000원 할인! 중계! 1588-7941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p>	<p>고려대점 ☞ 267-7777</p> <p>1관 오감도 (18세) 2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세) 3관 아더와 미니모이 (전세) 4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거북이 달린다 (15세) 6관 킹콩을 들다 (전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8관 차우 (12세) 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10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p> <p>• 500원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0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amp; OK 카쉬카드 할인 혜택</p> <p>• 해미 수영장 289-5757 • 해미 유희점 282-0925 • 해미 골프장 281-6000 • 해미 당구장</p>	<p>색깔있는 영화선정 ☞ 1544-0070</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킹콩을 들다 (전세) 2관 오감도 (18세)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세) 4관 거북이 달린다 (15세)/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5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 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자 사루나(오전5시~오후11시)</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새로운 7월 ☞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p> <p>충장로 3가 VARS 전화예매 227-1980</p> <p>1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세) 2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세) 3관 차우 (18세) 4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5관 거북이 달린다 (15세)/킹콩을 들다 (전세) 6관 여고괴담5 (15세)/ 오감도 (18세)</p> <p>• 무료주차 3시간 (영주, 서문소 및 유희점 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80</p>